다시 만나는 청담 큰스님

출가서 열반까지 '스님' 생애 담은 평전
행적 담은 흑백사진 현대 한국불교사 증언

'빈 연못에 바람이 울고 있다'
혜자스님 · 이상균 지음
생각의 나무 / 9천8백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청담스님(1902~1971)은 열반하기 하루 전 이화여대에서의 마지막 설법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다.

과연 우리들 중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출가에서 열반까지 청담스님의 모든 것을 담은 평전 〈빈 연못에 바람이 울고 있다〉는 바로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봉암사 결사, 6비구 할복 사건, 정화불사. 청담 스님 하면 떠올리게 되는 몇가지 대표적인 이야기 외에 그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던 스님의 숨은 면모들을 이 책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청담 스님은 평생을 마음 찾기에 나섰던 구도자였다. 그런 까닭에 '마음'은 항상 스님 법문의 중요 주제이자, 법문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우리에게 본래 마음 찾는 공부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셨던 스님이었다.

수행하는 곳이 화려하거나 아늑해서는 안된다며 토굴에 들어가 기약없는 안거에 들어가는가 하면, 여러 종교가 가진 특성을 견지하면서 공통의 가치인 사랑 · 평화 · 정의와 같은 윤리관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종교협의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불교 내부 혁신을 통한 현대화, 중생교화, 종교 간의 대화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쳐 보인 청담 스님. 그러한 스님의 면모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된다. 아니, 비춰보아야만 한다.

이 책의 저자이자 청담스님을 평생 곁에서 시봉한 혜자스님은 이렇게 회고한다.

"청담 큰 스님은 한 사람의 종교인을 넘어 전 중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던진 '보살'이었다. 청담 스님은 일찍이 설령 금생에 성불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사람을 다 건지겠다고 선언했다. 혼돈의 시대에 우리를 이끌어 현재를 일구어 내신 스님은 현대 한국불교의 자화상이다."

혜자 스님은 청담 스님의 탄신 1백주년을 맞아 펴낸 이 책이 불교정화의 선봉장이라는 부분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철저한 수행자로 살다간 청담 큰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치 소설처럼 읽히는 이 책은 중간 중간 청담스님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는 빛바랜 흑백사진을 보는 재미도 톡톡하다. 부록으로 청담 스님의 시봉을 맡았던 시자스님들의 회고담도 마련해 놓았다.

이은자 기자 eijee@buddhapia.com

"문학 속에 용해된 禪의 세계"

인터뷰 '이규보 불교시' 펴낸 강석근 박사

이규보의 불교사상과 시적 변용과정 담아

"스님들의 선시가 시로서의 가치보다는 선적가치가 더 크다면, 문학적 기량을 인정받는 이규보의 시는 선이 문학 속에 용해되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특히 문학적으로나 불교적으로 절정에 달했을 때의 그의 시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동국대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강석근 박사는 최근 〈이규보의 불교시〉를 펴냈다. 〈동국이상국집〉 〈백운소설〉 등을 남긴 고려시대의 문신이라는 것이 일반인이 알고 있는 이규보(1168~1241)에 대한 전부다.

"이규보는 총 290제 403수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다룬 적은 있었지만, 책 전체를 통해 그의 불교 시를 다룬 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책은 지난 97년 박사 논문 '이규보의 불교시 연구'를 다듬고 보충해 단행본으로 펴낸 것이다. 이규보의 불교관과 불교적 행적, 그리고 불교 사상의 시적 변용과정과 문학사적 의의를 담았다.

"한국 문학사에서 선시를 본격적으로 창작한 이가 승려 혜심(慧諶, 1178~1234)이라면, 이규보는 승려에 의해서 주로 창작되던 선시와 불교 시를 일반화시키고, 불교적인 사유와 세계관을 문학에 도입해 새로운 시적 경지를 개척한 시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불교 시는 불교적인 논리나 사상이 앞서지 아니하고 상상력과 감수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시적인 완성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고려시대 최고 지성 이규보의 불교 시에 대한 깊이 있는 담론을 이 책에서 펼쳐 보이고자 했습니다."

〈이규보의 불교시〉(이회 刊, 1만2천원)외에 강씨는 신라 말기 최치원에서부터 이규보, 이장용, 조선의 무학대사까지를 관통하는 여러 작가와 작품론을 다룬 〈한국불교시연구〉(이회 刊, 1만5천원)도 함께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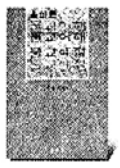
신책소개

'운문선 연구'
원공 지음 도반 刊

원공 스님의 박사학위논문〈운문선 연구〉를 보완 · 정리한 책이다. 운문종의 종조인 운문문언(雲門文偃, 864~949)의 생애와 가르침, 운문선의 전승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 값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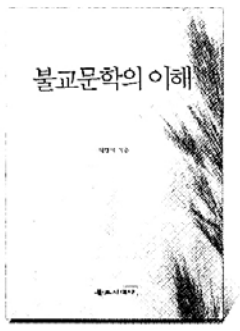
'올바른 불교이해…'
서영선 편저 · 삼보각 刊

불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서. 1편 '불교의 이해'에는 불교의 정의와 목적, 삼보의 뜻과 본존의 비교, 불자가 지켜야할 계율 등의 내용을 담았다. 2편 '불교예절'에서는 사찰에서의 예절, 스님을 대할 때의 태도에서부터 합장과 차수의 뜻과 절하는 법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밝혀놓았다. 값 6천원.



문학의 입으로 '진리'를 노래

'불교문학의 이해'
서영애 지음
불교시대사 / 1만 8천원



불교문학 · 불교경전의 문학성 탐구

법계에 가득 차신 부처님!
부처와 부처들에 두루 공양하옵저
아아! 법공양(法供養)이야 많지만
제(자신)을 체득(體得)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공양이어라!'

'불살개를 잡음에
부처님 앞의 등(燈)을 고쳤는데
그 등불의 심지는 수미산(須彌山)이요
등불의 기름은 큰 바다를 이루었네
향은 법계(法界) 다하도록 하며
향에 마다 법의 공양으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법문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너무도 아름답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노래한 고려시대 향가 '광수공양가(廣修供養歌)'이다. 균여스님이 지은 것으로 우주 법계에 가득한 모든 부처에게 올리는 공양의 깊은 의미를 함축함과 동시에, 모든 중생을 부처처럼 공경하고 공양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양이라고 노래하고 있다.

일본 오오따니(大谷)대학 대학원 문학연구과에서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서영애씨가 펴낸 〈불교문학의 이해〉는 이처럼 문학의 형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쳐낸 이야기들이 담긴 책이다.

이 책은 불교 문학의 연원과 성격을 소개한 개설서다. 제1부에서 불교예술과 불교문학의 개념 및 정의, 불교문학관의 경향과 문제점을 소개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인도의 고대문화와 고전문학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 제3부에서는 불교경전에 대한 소개와 그 문학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불교문학의 발달과 장르를 분류했으며, 제4부에서는 한국불교문학 작품과 그 해석을 실었다.

이은자 기자

해외불서

족첸 수행 입문

티베트의 불교 명상 수행 법인 '족첸(Dzogchen)'은 일상 속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바를 명확히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족첸 수행 입문(The Dzogchen Primer)〉은 이러한 족첸 전통을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한다. 저자인 마샤 슈미트(Marcia Schmidt)는 오랫동안 이 방면에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 불교 입문자들에게 체계적인 수행법을 제시한다. 또한 밀라레파, 파드마삼바바, 샨티데바, 쵸감 트룽파, 툴쿠 우르겐 등 티베트 고승들의 가르침도 소개한다.

'족첸'이란 말은 우리의 신념과 지식구조, 일상적인 견해를 넘어선 곳을 의미한다. 족첸 마스터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제거할 것을 가르친다.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자세히 관찰하면 경험은 경험일 뿐, 다른 무엇도 아니다. 거기에는 형상도, 소리도, 색깔도, 맛도 없으며 오직 텅빈 인식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것이다. 미국 샴발라출판사 펴냄.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이뭐꼬	성철스님	김영사
2	화(Anger)	틱낫한	명진출판사
3	바로 이번 생에	우빤디따	불광출판사
4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김용옥	통나무
5	숫타니파타	법정스님	이레
6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근동	솔바람
7	깨침과 깨달음	박성배	예문서원
8	달라이라마의 밀교란 무엇인가	설오스님	효림
9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달라이라마	김영사
10	마음꽃	경허스님	고요아침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도서출판 정화사 339-834 충남 연기군 금남면 석교리 510 Tel : 041)867-4000 Fax : 041)867-4001

승복 법복 안내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항상 처음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1. 모직혼방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 ₩140,000 동방, 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면 100% 조각무늬 무직	적삼, 바지 : ₩130,000 동방, 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3. 누비 (면솜 100%)	적삼, 바지 : ₩220,000 동방, 바지 : ₩240,000 두루막 : ₩200,000
4. 누비 (혼방)	적삼, 바지 : ₩170,000 동방, 바지 : ₩190,000 두루막 : ₩170,000
5. 법복 (회색, 밤색)	쪼끼, 바지 : ₩60,000 ~ ₩65,000
6. 장삼 (모직)	₩200,000 ~ ₩250,000

※ 가사 주문받습니다 ※
● 찾아오시는길 :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 3번 출구 앞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섬유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011-809-2398
주 소 : 대구광역시 중구 포정동 6-11 [지역대리점모집]